전남대 학사 행정 '총체적 부실'

감사원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결과

교수가 제자 연구비 수천만원 횡령

24%가 강의시간 어겨 학습권 침해

전남대학교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가 하면 연구비 집행 및 교원 공채, 기자재 관리 등 전남대의 각종 행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립대학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하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교수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관리, 전임교원 채용 심사, 산학협력단 지도·감독 등의 분야에서 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주의 조치했다.

▲연구비 횡령=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도한 박사과정 재학생 3명에게 지급되는 연구인건비 지급통장을 관리하면서 65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원을 인출했다. A교수는 이 가운데 6천100만원을 본인 명의로 설립한 벤처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8천400만원은 외국인 학생 인건비 및 대학원생 수당 등으로 임의 지출했다.

또 시간강사 B씨는 지난 해 정부 연구기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출장비 84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A교수를 검찰에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발한 뒤 해임을 요구했으며, 시간강사 B씨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관리 부적정=전남대가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주당 9시간) 준수실태 조차 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008년도 2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867명 중 24.1%에 달하는 209명이 퇴직예정교수 예우, 대형프로젝트 수주 준비 등의 이유로 강의책임시간을 어기는 등 2006년부터 200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평균 21.2%인 182명이 강의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사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교원 채용 심사 부적정 등=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연구실적 심사와 관련, 수준미달이나 중복성, 전공과 불일치 등의 이유로 인해 심사위원들이 1차적으로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논문이나 저서가 다시 평가돼 점수로 산정되는 등 심사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의 연구기자재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과 산학협력단 연구비의 중앙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용역수익이 줄어든 점도 주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남대 김윤수 총장은 "향후 연구비 부당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18 후유증' 자살 잇따라

광주·청주서 유공자 2명 목매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부상으로 후유증을 앓던 5·18 유공자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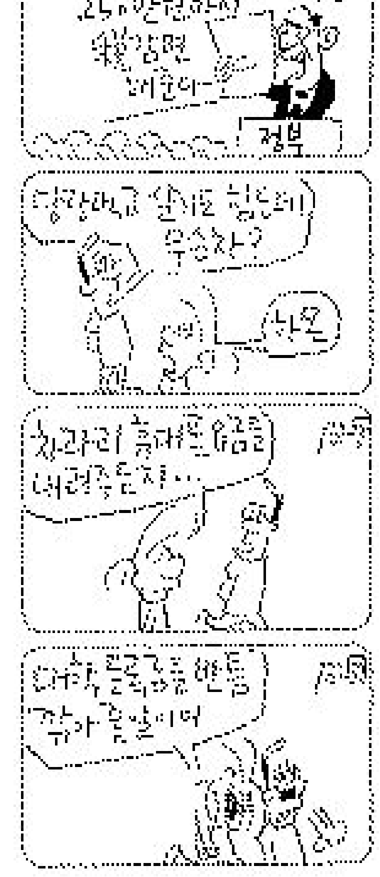
1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모(48)씨의 집에서 한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5월 당시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붙잡혔으며,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달 24일엔 충북 청주에서 5·18 유공자인 김모(48)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도 부상 후유증을 앓았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5·18 기념재단과 생명인권본부가 2007년 10월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와 가족의 자살 피해 현황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5·18 부상자 중 사망자는 총 376명으로 이 중 39명(10.4%)이 자살로 숨졌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보상 지연, 생활고 등으로 유공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779〉 김종두



"정신장애 극복해야죠" 15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정신장애극복한마음 축제' 참가자들이 체육행사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정신요양협회 광주지부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광주지역 지적장애인 950여명이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광수협장 당선자 조사

조합원에 금품제공 혐의…지지자 3명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영광군수협 조합장 당선자 김모(47)씨와 지지자 3명 등 4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와 지지자 등은 지난달 9일 실시된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30만~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27일 영광읍에서 열린 조합원 연말 회식자리에 참석해 식당과 술집 등에서 1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거일 직전 김씨의 부인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이 수십차례에 걸쳐 인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30일까지 '영광군 수협장 불법선거관련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현수막 걸던 대학생 실족사

14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학생회관 4층에서 김모(여·22)씨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이 학교 학생 오모(22)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7시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4층 난간에서 동아리 현수막을 걸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로 미뤄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채팅 중 절도행각 자랑하다 '덜미'

쌍나팔

○…20대 절도범이 인터넷 채팅 상대에게 자신의 절도행각을 늘어놓다 경찰서행.

○…순천경찰은 15일 오락실과 교회 등에 침입해 동전을 훔친 이모(21)씨를 특수절도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께 부산시 금정구 모 교회의 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커피자판기에 들어있던 3만원 상당의 동전을 훔치는 등 최근 4개월간 2차례에 걸쳐 13만원 상당의 동전을 훔친 혐의.

○…이씨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채팅사이트에서 자랑삼아 이야기했다가 이같은 제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영세상인 상대 833% 폭리

고리 사채꾼 6명 검거

광주동부경찰

광주동부경찰은 15일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 하면서 폭리를 취한 배모(30·광주시 서구 금호동)씨 등 6명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김모(38)씨 등 88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05~833%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총 1억6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구에서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광주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영업 담당구역을 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압수한 대출관련 서류를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주민센터 방범시설 교체

광주 북구청

최근 광주지역 동(洞) 주민센터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본보 14일자 6면, 15일자 6면**>이 제기되자 북구청이 방범시설을 보완교체키로 했다. 북구청은 17일까지 내부침입을 최우선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유리창과 출입문에 적외선·유리·자석·오디오 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3명 영장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5일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37)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15)양 등 가출 청소년 3명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50여명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24)씨 등 2명은 올해 3월부터 김씨의 집을 나온 A양을 비롯해 성인 여성 2명과 모텔에 함께 머무르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로 받은 돈을 나눠 20여차례에 걸쳐 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성매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암동	대1139,건1959	111억	62억	신축요양병원
노안면	대663,건203	5억7천	4억	주유소,가든
지석동	대151,건213	5억	2억2천	2층의원학국
오치동	대131,건159	4억1천	2억9천	2층 공장
신안동	대88,건265	8억6천	4억4천	4층 빌딩
송정동	대127,건175	5억1천	3억6천	원룸24세대
학동	대82,건147	4억3천	3억	원룸20세대
오치동	대281,건231	7억4천	2억6천	2층 공장
농성동	대167,건686	28억5천	15억9천	7층 빌딩
운암동	대238,건755	26억9천	15억	8층 빌딩
쌍암동	대137,건501	19억5천	10억9천	5층유흥타운
월산동	대124,건371	10억8천	3억8천	5층 빌딩
소촌동	대802,건1387	64억8천	29억	7층찜질방

아파트/빌라 박경원이사 010-2611-5598

소재지	명칭	평	총층/층	감정가	최저가
일곡동	현대아파트	24	17/3	6천8백	4천7백
일곡동	벽산아파트	32	21/2	1억1천	8천5심
월곡동	하남금호타운	31	15/11	9천	6천3백
두암동	현대아파트	57	18/4	2억1천	1억5천
연제동	현대아파트	61	20/6	1억5천	1억8백
유촌동	호반리젠시빌	34	16/3	1억4천	9천8백
치평동	현대아파트	32	19/5	1억4천	1천1천
우산동	현대아파트	55	15/9	1억6천	9천
화정동	금호아파트	49	15/14	1억7천	1억2천
쌍촌동	모아제일	32	20/1	1억2천	7천6백
화정동	럭키엄주@	27	10/1	6천	4천2백
일곡동	대림아파트	20	17/8	6천	4천2백
학 동	현대아파트	59	15/9	2억7천	2억1천

주택/재개발 여영철팀장 010-3633-9811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용봉동	대39,건47	8천7백	4천9백	2층주택
누문동	대30,건15	7천1백	4천	주택
월산동	대44,건38	8천1백	3천6백	주택
곡성오곡	대118,건30	4천3백	1천5백	주택
임림동	대54,건38	1억	4천5백	주택
신안동	대70,건41	1억2천	5천3백	주택
벽진동	대34,건35	8천3백	2천9백	주택
월산동	대40,건53	1억5천	6천6백	2층주택
용봉동	대34,건40	9천2백	3천3백	2층주택
백운동	대45,건42	8천7백	4천9백	2층주택
영광읍	대112,건65	1억5백	4천7백	주택
삼거동	대245,건87	1억	5천6백	주택
곡성읍면	대105,건35	6천2백	2천5백	주택

숙박시설/상가 정이사 010-5879-080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흥동	대410,건871	33억	23억	8층모텔
학동	대83,건328	7억1천	3억1천	5층모텔
월로동	대62,건173	3억9천	2억2천	4층모텔
신안동	대107,건343	11억5천	5억1천	5층모텔
화순	대1092,건898	17억	3억2천	6층모텔
중흥동	대120,건403	13억	5억8천	6층모텔
쌍암동	전용 23	2억4천	6천8백	3층상가
월계동	전용 323	11억	3억1천	지하상가
매월동	전용 57	3억	1억	1층상가
화정동	전용 24	1억4천	6천4백	2층상가
치평동	전용 26	1억6천	7천1백	2층상가
봉선동	전용 15	2억8천	8천	1층상가
화정동	전용 12	1억1천	5천2백	1층상가

근린주택 박경원이사 010-2611-5598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주월동	대232,건262	7억	4억9천	3층근린주택
월산동	대105,건266	4억6천	1억6천	3층근린주택
풍암동	대65,건116	3억5천	2억4천	3층근린주택
양동	대60,건105	2억9천	1억3천	4층점포
두암동	대45,건51	1억1천	6천6백	2층근린주택
화순읍	대216,건851	22억8천	12억8천	5층근린주택
금호동	대107,건193	5억7천	4억	3층 교회
각화동	대40,건67	1억6천	9천1천	3층근린주택
중흥동	대50,건184	3억4천	2억4천	4층근린주택
우산동	대34,건54	1억4천	4천8백	3층근린주택
산수동	대67,건153	3억3천	2억3천	3층근린주택
월산동	대124,건370	10억8천	3억9천	5층근린주택
소촌동	대802,건1387	64억8천	29억	7층근린주택

공장/토지 손혜연이사 010-9611-2817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본촌동	대 85	1억2천	8천8백	대지
신용동	대 156	1억3천	9천4백	농지
장덕동	대1500,건1455	31억3천	20억4천	공장
일신동	대 153	4억9천	3억4천	대지
신용동	대 156	1억3천	9천4백	농지
신창동	대 325	2억8천	1억6천	대지
지산동	대 40	7천	3천1백	대지
나주삼영	대 282	8천6백	3천1백	농지
운수동	대634,건185	11억6천	5억1천	공장
오선동	대70,건129	2억	5천7백	아파트형공장
대촌동	대799,건913	26억3천	18억4천	공장
백운동	대 38	7억4천	3억3천	대지
요기동	대 124	2630	1180	대지

쌍촌동 2종주거지역매매 대지2339㎡ 급매매 12억5천만 원룸, 빌라, 교회, 대형음식점 매매문의 010-7570-7525

진월동 광주대입구 상가매매 호프 132㎡,분식 66㎡세탁 성업중 매매가 1억1천(대출1천,보증금1천) 실인수금 3천만원 매매문의 010-7570-7525

평동산단공장임대 [공장 사무실 180㎡] 좋은임대조건 입지조건최상 분할 임대 가능 임대문의 010-7999-4320

풍암동 대538㎡, 건1308㎡ 감정가 48억 최저가 29억 마트, 찜질방 전문상담 010-7570-7525

운암동 대1139㎡, 건1959㎡ 감정가 111억 최저가 62억 신축요양병원 전문상담 010-7570-7525

소촌동 대802㎡, 건1387㎡ 감정가 64억8천 최저가 36억 마트/찜질방 전문상담 010-7570-7525

삼계면 대25848㎡, 건1077㎡ 감정가 51억5천 최저가 18억4천 자원재생공장 전문상담 010-7570-7525